

## 제16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참관기



이 세 훈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 한국측 간사  
가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제16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중국 대련(大連; Dalian)시에 있는 Furama호텔에서 6월 2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규상 교수님 등 79명, 일본에는 Okubo 전 산업의과대학 총장 등 42명, 중국에서는 Wang 베이징대 교수 등 148명이 참석하였다. 전체 발표연재수는 147개이었다.

학회의 일정은 예년의 일정처럼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포스터 발표를 오후에서 오전으로 앞당겨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왕 교수가 구연발표를 오후로 옮김으로써 참가자들이 학회장에 머무르게 하려는 의도로 일정을 조금 바꾼 것이었는데 약간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 • 6월 2일(목)

- 14:00-17:30 근골계질환에 대한 Workshop
- 18:00-20:00 Pregathering party

### • 6월 3일(금)

- 08:30-09:00 개회식
- 09:10-10:40 기조강연
- 10:40-12:30 포스터발표
- 14:00-18:20 구연발표
- 19:00-21:00 만찬

### • 6월 4일(토)

- 08:30-11:00 건강증진에 관한 심포지움
- 11:00-11:30 폐회식

우리나라의 참가자들은 6월 2일 12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체가 함께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공기의 사정으로 뜻하지 않게 출발이 늦어져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경에야 도착하여 대한민국측에서는 연제발표자를 포함한 전체 참가자들이 Workshop에는 참석을 못하였고 pregathering에도 약 30분 늦게 참석하게 되었다.

6월 3일 예정보다 약 10분 늦게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중국 Zhao교수의 사회로 대회장인 Wang교수가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참석자 연제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최병수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일본의 Okubo 교수가 각각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표자로서 축사를 하였고 중국 보건부의 Health Enforcement and Supervision국의 Su Zhi박사가 학회를 축하해 주었다.

곧 이어서 기조강연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남원 교수가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Quality Control Program for Industrial Hygiene Laboratories in Korea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 백남원 교수는 1992년에 시작된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그 결과를 솔직하게 제시하고 해가 지남에 따라 괄목할 만하게 발전하여 합격률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아직도 전반적인 정확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도관리의 결과에 검사실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중요한 사람 등을 포함한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Takuro Shoji교수가 일본의 산업안전에 대하여 그리고 중국에서는 Huazhong 대학교의 Tang-chun Wu교수가 산업스트레스 및 직업병에서 Heat Shock Protein과 그 항체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기조강연 후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필자와 일본의 Higashi 교수 등 6인이 포스터 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하였다. 포스터 상은 2002년에 부산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일중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권장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예년과 같이 Best Presentation, Best Scientific, 및 Best Innovative 등 3개 부문으로 되어있다. 저녁때 만찬장에서 Best Innovative는 연세의대의 노재훈 교수가 수상을 하였고 나머지 둘은 일본 산업의과대학 소속의 발표자에게 수여되었다. 중국에 대상자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착된 전체 포스터 39개 중 4개 정도였다는 점이다. 전체 포스터 연제는 98개로서 우리나라에서 19연제, 일본에서 12연제, 대만에서 4연제 및 중국에서 63연제가 초록집에 인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제는 모두 부착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연제 포스터는 부착된 것이 거의 없었다.

중국 참가자들은 14차 부산모임 때부터 계속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

고 구연발표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계속 우리나라와 일본의 운영진이 이점에 대해 우려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어 부심하고 있었다. 더욱이 중국에서 개최할 때조차 또 같은 문제가 발생되자 드디어 이날 점심때 열린 3개국 운영 위원회에서 일본의 Ikeda교수가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초록제출자에게 포스터 부착을 당부하는 편지 발송, 사전등록자에 한해 초록게재 등 여러 의견이 오간 끝에 금년 9월에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인 3개국 간사모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 제17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를 1989년에 개최한 바 있는 제주도에서 5월 25-27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있었던 회의내용으로는 공통성이 있는 연제들을 모아 mini symposia, workshop, round table discussion 등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향후에 연제들로서 aging, 정도관리,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보건사업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것도 간사모임에서 의논할 예정이다. 또한 3개국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한일중 산업보건학술집담회에 대한 Home page를 일본 산업의과대학에서 맡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그 외 안건으로 일본측에서 2012년 ICOH 학술대회를 3개국 중 한 나라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하며 ICOH 회원이 150여명인 일본으로서는 한국이나 중국측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면 지원하겠다고 하여 중국측에서 2개월내에 개최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번 학회동안 학회측에서 식사를 네 차례 제공하였는데 Pregathering party와 금요일 점심식은 같은 식당에서 제공되었지만 만찬과 토요일 점심은 다른 식당이었다. 그만큼 대회장인 Wang교수가 식사에 대해서는 식단을 달리해서 참가자들이 다른 맛을 경험하게끔 세심하게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련시는 560만명 인구의 상업도시로서 백년 이상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되었다. 뽀뽀하게 서 있는 현대적인 고층빌딩의 바로 뒷길에는 백년전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낡고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바로 이어 즐비하게 있었다. 2001년 베이징에서 제13차 중일한 집담회에서 베이징 시내의 신호등이 왜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하게(?) 무질서한 교통도덕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대련시는 베이징과 다른지 몰라도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Su Zhi박사의 측사 중 언급된 것으로 중국의 근로자 수가 7억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중국은 큰 나라이며, 4년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건물의 신축현장을 보고 중국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 ☺